

Robert A. Peterson 박사, 누가복음-사도행전

세션 1, 누가 참고문헌, Bock의 개요 및

저자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1, Luke 참고문헌, 그리고 Darrell Bock의 개요 및 저자입니다.

누가복음과 신학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하자면 그의 두 번째 책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신학』이 그것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의 생각과 글, 그리고 그를 통해 주신 메시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소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는 그가 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신학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관한 몇 가지 참고문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럴 보크(Darrell Bock)은 최고의 복음주의 누가학자이다.

Darrell은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다빈치 코드 등에 관한 다양한 토론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통성과 합리성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달콤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크레이그 블레이징(Craig Blazing)과 함께 진보적 세대주의의 창시자 중 한 명입니다. 이것은 긴 이야기지만, 이 연약 신학자의 눈에는 이미 변형된 복음주의 신학이었던 고전적 세대주의에 대한 개선점입니다.

어쨌든 대렬은 베이커가 발행한 신약성서 주석에서 누가복음 전체를 다루는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정말 훌륭하고, 정말 훌륭합니다. 그는 훌륭한 주석가이고, 훌륭한 신학자이며, 글도 잘 씁니다. 교회 도서관이나 온라인 등에서 샘플을 받아보셨다면, 샘플을 조금 읽어보시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훌륭합니다.

Joel Green은 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르미니안 전통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신약학자입니다. 그는 주석뿐만 아니라 주석과 신학에도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석과 신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이끌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교로 이사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대한 새로운 국제 주석서에서 그가 쓴 누가복음은 매우 뛰어납니다. 나는 세부 사항 중 일부에 대해 Bock과 더 많은 동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Green은 Bock처럼 수년간의 경험을 제공하지만 Green의 논평은 사회 수사학 연구를 통합하여 작성되었으며 항상 그와 동의하지는 않지만 와우, 대부분의 경우 나는 루크에 대해 생각하도록 배우고 자극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Joel Green의 해설을 조금 살펴보고, 샘플을 통해 그것이 귀하에게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 저명한 영국인이자 감리교인이자 신약학자인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은 수년 동안 가르쳤고 지금은 은퇴하여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책인 누가복음, 역사가, 신학자를 썼습니다. 누가의 저작 중 특히 사도행전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샬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FF 브루스에 이어 복음주의 신약학자들의 훈련 점수로 특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다.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은 다양한 복음주의 전통을 지닌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으며, 그들은 오늘날 우리 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칠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훈련할 것입니다. 그의 책은 정말 견고하고 도움이 된다. 다음 일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랍도록 찬란합니다. 그것은 농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이니셜입니다.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함께 여러분에게 대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먼저 우리는 Darrell Bock과 그의 누가복음 주석 중 제1권과 함께 누가복음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개요.

누가복음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독특합니다. 첫째,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표준 그리스어 판에서 마태복음은 87페이지를 차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의 짧은 결말까지 마가복음은 60쪽입니다. John은 73이고 Luke는 96을 차지합니다. 한 번 더. 이것은 네슬레-알란(Nestle-Alan)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7쪽; 마크, 60세; 존, 73세; 누가복음, 96쪽. 구절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071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78. 요한복음에는 869절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1,151절이 있습니다.

둘째, 속편이 있는 유일한 복음서이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 그 사역이 초대 교회 시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누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가져왔는지, 초대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전파했는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사명을 수행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두 권의 책과 그 메시지는 사실상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경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종종 사도행전에서 답이 나오는 많은 문제의 기초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행전은 한 작품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성서는 마태, 마가, 누가-행전, 요한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마태, 마가, 요한, 누가-행전이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는 개혁 신학자로서 물론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게 아마 내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요한복음 신학에 정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강의는 요한 신학, 특히 4복음서 신학에 관한 전체 강의 시리즈인 biblicalelearni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가복음 신학을 처음 접했지만 압도당했습니다. 그것은 경이 롭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이 이름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것에 대해 흥분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난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이 나오는데 어디에 두나요? 지금은 이별한 상태입니다. 네 복음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복음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독자적으로 행함을 행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도 공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방식입니다. 누가-행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비록 그 공동체의 뿌리가 원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에서 동등하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누가 시대 교회에서는 특히 네 가지 문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될 수 있었으며, 구약에서 창세기 17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언약의 표징이었던 식탁 교제와 할례 배제와 같은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었습니까? 율법과 유대 전통과 관련된 많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인종을 포함하도록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 과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주로 대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유대 전통 국가의 메시지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청중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걸보기 역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그토록 많은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토록 관대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았습니까? 만일 축복받았다면 그러한 축복의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기를 그치셨나요? 새로운 공동체는 옛 신앙 공동체에서 물러났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누가의 대답은 교회가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민족에게 전파했으며 물려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교회를 외면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나라와 특히 그 지도자들이 예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대답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누가-행전에 관한 세 번째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인격과 가르침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맞는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체적으로 부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임재를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대표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재하는 인물을 높이고 그를 하나님 역사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살해당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까? 그를 통해 어떻게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주요 답변을 적용합니다. 바울과 요한의 신학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귀를 믿지만 사도행전은 강력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를 결합합니다.

예수의 승천은 특히 바울의 글, 베드로의 글, 요한의 글에서 여러 번 언급되지만, 그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보고는 누가복음의 두 부분인 누가복음의 두 부분을 합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만 있다. 원한다면 술기 부분에서 바로 함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높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주요 답변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영의 기초가 되는 기독론을 제시함으로써 토대를 마련합니다.

기독론, 그리스도의 교리, 강화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그분의 후속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초를 형성합니다. 넷째, 예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구되는 것? 그러한 약속을 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간단히 말해서, 신자와 새로운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을 정의하는 누가복음의 주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대부분은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떠나실 때를 준비시키고, 그가 없는 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소위 여행 이야기인 예루살렘 여행을 줄여서 표현하면 9장부터 19장까지의 중요한 누가복음 부분이 복음에 들어맞고 그 목적을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가르침을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시대와 너무 크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24:44부터 49절까지, 누가복음 5:31, 32, 누가복음 5:31, 32도 참조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과 동일시하십니다.

예루살렘 여행 부분(누가복음 9~19장)과 평상설교의 윤리는 임박한 거부의 현실 때문에 눈에 띕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헌정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헌정에서 그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언급하는 그의 첫 번째 책을 상기시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 이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식별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의 임무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선언에 적대적인 세상에 사는 방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과 그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은 이러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의 임무는 데오빌로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눅 1:4). 특히 새로운 공동체에 이방인이 존재한다는 논란에 관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야겠어요. 그것은 누가복음에 맞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 [누가는] 나도 그간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 학자들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테오피루스를 실존 인물로 간주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1세기 그리스-로마 저술물이 누군가, 아마도 후원자에게 헌정된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신자입니까? 어느 경우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 데오빌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바로 첫 구절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르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때때로 그는 여기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임무는 데오빌로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눅 1:4).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서 예수의 역할이며, 사도행전은 그의 사역에서 등장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의 성격을 묘사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유대인의 약속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지만 고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극심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의 일부 문제에 더 호의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대부분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기독교인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방인이 정말로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그토록 많은 적대감과 거부에 직면한 공동체 뒤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과 가르침에서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삶, 가르침, 죽음, 부활은 누가복음 1:1에 나오는 신성한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들”을 실제로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선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길을 보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은 이제 부활하신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신 분을 통해 자신과 택하신 자, 약속과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메시아와 주님을 통해 자신과 택하신 자 예수님과 약속과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사도행전 2:36 및 10:36. 행 2:36, 행 10:36. 누가복음은 성취의 모습과 적대감의 표현을 소개하는 반면, 사도행전은 새로운 공동체의 초기 핵심 장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옵니다. 죄송하지만 구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에 따라 옵니다.

물론 십자가가 중심이다. 공식적인 유대교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약속의 형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구약성경의 옛 성서에 약속된 방식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사역 기간 동안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9:35 및 44~45절. 누가복음 18:31~34, 특히 누가복음 24:44~47. 한 번 더. 누가복음 9:35, 44, 45; 누가복음 18:31, 34,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새로운 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것은 기독교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한 적대감이 예수를 죽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러한 저항을 계속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충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새로운 운동의 배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이 이 진리를 보여주는 반면, 새 시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로부터 예루살렘, 로마의 바울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한 말씀의 확장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로마로.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환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감독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다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까지 모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

사도행전의 세 장, 특히 10장, 11장, 15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길과 축복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음을 깨닫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눅 5:30~32 및 누가복음 19:10).

누가복음 5:30~32. 그리고 누가복음 19:10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의 구원 메시지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로 간주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뿌리가 고대 경전의 소망에까지 미치고 그 실현이 예수 안에서 왔고 앞으로도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2:14-41; 행 3:11-26.

그리고 그의 깨달음은 예수 안에서 이미 이르렀고 장차 올 것입니다. 정말 큰 문장이군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그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고대 경전의 희망에 뿌리를 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장, 나는 이것을 이전에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14~17, 누가복음 1:31~35; 누가복음 1:57-79; 누가복음 4:16~30. 또 누가복음 24:44~47.

하나님은 그분께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엄청나게 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4~17, 31~35, 57~79; 누가복음 4:16-30; 누가복음 24:44~47.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 완전한 실현, 실현은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14부터 41절까지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행 3:11~26.

누가복음의 기원과 목적. 우선 저자입니다. 저작권 및 출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외부 증거와 내부 증거를 종합해보면 누가가 두 작품의 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 증거는 연구 중인 책에 포함된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물론 외부 증거는 고대 성경 번역판에서나 교부들에게서나 연구되는 책 밖의 증거를 가리킨다.

내부 증거. 내부 특징은 두 가지 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본 것처럼, 저자는 두 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 특히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 2. 오히려 그는 누가복음의 서문을 인용하고 목격자와 말씀의 종들이 인용한 전통에 대한 연구에 의존해 왔습니다. 가까운 인용문(누가복음 1:2~4).

부분 으로 알려진 사도행전의 해당 부분에서 자신을 바울의 동료로 소개합니다. 즉, 누가는 3인칭으로 썼다가 다시 1인칭 복수형으로 씁니다. 우리는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행 16:10부터 17. 행 20:5부터 15; 사도행전 21:1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난파선 구절에서 사도행전 27:1부터 28:16까지. 이것이 우리 섹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복음서에 기록한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때때로 그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으로 자신을 투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섹션은 사도행전 16:10부터 17까지입니다. 행 20:5~15. 행 21:1~18. 행 27:1~28:16.

이 기능은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저자의 신원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Bock이 역사적으로 we 섹션의 신뢰성에 대한 논쟁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좋은 학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뢰성을 믿습니까? 예 그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관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는 누가복음에 대한 학문적 주석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때로는 진실이 우스꽝스러운 곳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Darrell Bach는 성경을 믿고 누가와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믿습니다. 이는 그의 작품을 한 페이지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섹션을 둘러싼 현재 논쟁은 그것이 목격자의 증언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목격자의 존재라는 인상을 주는 문학적 장치인지 여부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고 싶어합니다. 첫 번째 직위인 Ellis는 1974년에 책을 썼습니다. Hemer, Colin Hemer, 1989. 그들은 둘 다 그것이 허구라는 점에 관한 문제를 썼습니다. 우리는 허구입니다.

1971년 그의 유명한 논평에서 자유주의 평론가인 한슨(Hanson)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질문에는 셋째 복음서의 저자가 바울을 얼마나 잘 알았는가 하는 문제도 포함됩니다. 실례합니다.

우리 부분에서는 저자를 사도 바울의 여행 동반자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관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 그린 바울의 그림을 바울 서신의 자화상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두 그림이 세부적인 면이나 신학적인 강조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누가는 바울의 사역과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 서신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섹션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또 다른 비평가 Vielhauer, Vielhauer, VIELHAUER. Vielhauer는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바울의 동반자가 되기에는 초상화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989년 사도행전에 대한 로마 카톨릭 평론가인 피츠마이어 (Fitzmyer)는 창조적인 문학적 장치로는 우리 단위가 그렇게 자의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연관성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러한 문학 삽입의 후보가 될 여러 항해 참고 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조셉 피츠마이어 (Joseph Fitzmyer)는 누가가 바울과 분리될 수 없었다는 이레나이우스의 유명한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누가는 후배 동료일 뿐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Irenaeus는 그의 이단에 반대함 3.14.1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자유주의자인 Golder(1989)는 누가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알고 암시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덜하지만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암시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975년과 76년에 쓴 Paul and Sculpture of the Heart Set Free에서 Paul, FF Bruce의 두 초상화의 호환성을 옹호합니다.

따라서 누가-행전의 내부 증거는 저자가 바울을 알고 있었고 적어도 2세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외부 증거: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를 다루고 있으며, 누가복음 안의 정보로 작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 정보, 특히 교부들에 관한 외부 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외부 증거: 바울의 편지에는 바울과 함께 여행한 잠재적 후보자 중 일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누가의 외부 증거에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나 누가 사도행전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됩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바울, 마가, 아리스다르고, 데마, 누가와 함께 여행할 잠재적 후보자들이 몇 명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장, 골로새서 4:14. 이 목록에 디모데, 디도, 실라, 에바브라, 바나바와 같은 인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의미는 바울의 동반자이자 저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자들을 폭넓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전통은 이 두 권의 저자인 누가라는 한 이름에만 주목합니다. 이 전통은 주후 200년에 초대교회에서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반대 의견이 전혀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이라고 했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1세기 세계의 교통과 통신을 생각해 보면, 어, 오늘 세계 어딘가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잠시 후, 그 사건이 뉴스 곳곳에 등장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확실히 그렇지 않은데, 외경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쓴 편지, 심지어 묵시록, 계시록이 많았기 때문에 정경 문제만 고려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복음이 있는데, 그가 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행전이 있고, 베드로의 세 번째 편지도 있는데, 그것도 그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묵시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라 이것이 곧 이것들의 이름이니라.

우리는 교회가 시간을 내어 이 모든 글을 검토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마복음은 그 정의에 따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토마스와 같은 단순한 말 문서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1세기 유대교 등에 관한 정보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훨씬 더 느려졌고, 우리는 교회가 시간을 들여 정경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것에 감사하며, 누가-행전이 200년까지 누가의 저작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이 없다는 점은 전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암시는 일찍이 클레멘스 1서 13.2와 48.4에 나타난다. 사도 교부 중 한 사람인 클레멘스 1서, 13장 2절과 48장 4절은 AD 95-96년경 1세기 말에 기록되었습니다. 100년경의 클레멘트 2서 13.4도 역시 누가복음을 암시합니다. 게다가, 예수의 가르침의 용법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꾼은 자기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디모데전서 5:18에서 바울이 그를 고용했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는 두 가지를 결합하여 구약의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여 말하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소가 곡식을 밟을 때와 우리가 방금 언급한 누가복음 10.7절과 일꾼이 그의 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누가복음의 구절은 흥미롭게도 바울의 글에서 이미 수많은 본문이 저자에 대한 주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160세의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은 트리포 103.19와의 대화에서 누가가
예수의 회고록을 쓴 것에 대해 말하고 저자가 어떻게 바울의 추종자인지
언급합니다. 서기 170년에서 180년경의 모라토리엄 정경은 바울의 동반자인
의사 누가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단 반대 3.1.1, 3.14.1 및 3.1.1에서
Irenaeus는 175~195년경에 사용되었습니다. 3.14.1 복음을 바울의 추종자인
누가에게 돌리고 우리 섹션이 어떻게 연관성을 암시하는지 기록합니다. 따라서
교부들은 175년경 누가에 대한 소위 반마르키온파 프롤로그에서 우리 섹션을
기록하고 누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시리아 안디옥 출신. 행 11:19-30 행
13:1-3, 행 15:30-35 비교. 그는 84세까지 살았으며 의사였으며 미혼이었고
아카이아에서 글을 썼으며 보이오티아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Against Marcion 4.2.2 및 4.5.3, 4.2.2 및 4.5.3의 Tertullian 초기 3세기. 터툴리안은
복음을 바울 복음의 요약이라고 부릅니다. 3세기 또는 4세기의 반대
마르시온(Against Marcion) 프롤로그에서는 루크의 사망 나이가 74세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역사에서 4세기 초 유세비우스(3.4.2)는 누가를 안디옥 출신의
바울의 동료이자 이 책의 저자로 언급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로마 카톨릭
주석가인 조셉 피츠마이어 (Joseph Fitzmyer)는 1981년에 그의 책 40페이지에서
외부 증거를 다음과 같이 쉽게 나눕니다. 신약성서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과
추론할 수 없는 두 가지 범주 누가는 의사였으며 바울과 관련이 있었고 목격자가
아니었고 이방인을 염려하여 복음을 썼다는 사실은 신약성서에서 누가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리아 출신이었다고 선포된 바울의 복음
미혼이었고 자녀가 없었으며 노년에 사망함은 신약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개념이지만, 누가가 사망할 때의 나이에 대한 차이는 이러한 전통의 모든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저자에 대한

그들의 통일성은 누가가 복음서의 저자임을 거의 확실하게 해줍니다. 전승의
증언에 따르면 누가가 바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자 의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에 관한 다른 두 가지 질문에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는 의사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가 이방인으로 보지만 그가 순수한 이방인인지 비유대인 셈족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입니다. 예외는 Ellis 1974인데, 그는 누가가 헬레니즘 유대 기독교인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누가의 구약에 대한 지식이 컸기 때문입니다. 둘째,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은 할례자들과 관련하여 누가가 유대인이 아니라 단지 헬라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셋째, 팔레스타인 언어의 사용은 누가복음의 유대적 뿌리를 보여주지만 엘리스가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을 읽는 것은 모든 유대인이 할례를 받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은 할례자 명단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다 최근에 Salmon 1988은 저자가 토라 준수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 유대인 그룹을 구별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견해를 옹호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유대인의 문제로서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네 번째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부르는 것에 저자의 구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추가될 수 있다. 누가복음에 대한 민족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골로새서 4장 14절과 함께 아래에 언급된 다른 요인들로 인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Fitzmyer는 다시 1981년에 누가가 골로새서 4:10, 11, 14절의 본문 때문에 비유대인 셈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이름의 단축형은 라틴어 이름의 그리스어 형태이다. 셋째, 누가가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 전통의 세부사항이다. 이 견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Bock은 Fitzmyer의 주장을 Salmon의 주장과 합치면 누가가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나 유대인 개종자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4장은 누가복음에 대한 내부 정보의 일부이므로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14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 골로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너희가 훈계를 받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 그가 너희에게 오면 그 사람과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영접하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할례자 외에 나에게 위로가 된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장성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늘 힘쓰며 기도하고 있느니라. 14 절에서도 사랑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내가 방금 골로새서 4장에서 읽은 구절을 가리키며 더 이상의 세부 사항 없이 누가를 이방인으로 식별합니다. 그들은 셈어 이름이 있는 받을 언급하고 그런 다음 “그들의 언어”가 누가의 언어가 아님을 암시하는 사도행전 1장 19절에 주목합니다. 사도행전 1:19에서는 셈어 이름을 가진 받을 언급한 다음 저자와 구별되는 “그들의 언어”를 언급합니다. 즉, 누가복음 3장은 헬레니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지적합니다. 이 마지막 주장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 그러한 지리적 위치와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가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의 문화적 배경이 셈족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아마도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유대교와 종교적 접촉을 가졌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누가를 의사로 언급합니다. 1882년에 호바트는 누가의 직업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구두 증거를 표시함으로써 이러한 연관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호바트가 수집한 풍부한 참고자료에도 불구하고, 1926년 Cadbury의 작업으로 인해 사건은 모호해졌습니다. Cadbury는 거의 모든 기술적인 의학 용어가 Septuagint, Josephus, Lucian 및 Plutarch와 같은 일상적인 그리스어 문서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 언어가 어떤 직업을 가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Cadbury의 작업은 Luke가 의사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다만 이 책의 어휘가 그가 의사였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만 인정합니다.

결국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성장한 골로새서와 누가복음 전승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세부 사항은 참고할 필요가 없었으며 사과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때때로 바울의 동료가 됩니다. 그는 아마도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시리아인인지 그리스 로마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통은 또한 그가 장수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누가복음의 출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1, Luke 참고문헌, 그리고 Darrell Bock의 개요 및 저자입니다.